특 집

DOI https://doi.org/10.31552/jh.2022.01.43.55

일제강점기 실학자 저작의 출간과 조선학운동*

장 순 순**

머리말
Ⅰ. 일제 강점초기 실학자 저작의 출간
1. 재조일본인 단체
2. 최남선과 조선광문회
Ⅱ. 1930년대 실학자 저작의 출간과 조선학의 부흥
1. 1930년대 실학자 저작의 출간
2. 조선학운동의 전개와 다산 정약용 사상의 근대적 소환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저작이 근대출판물로 재간행되는 현상에 주목하여, 1910년 일제의 강제 '병합' 이후 식민지 조선에서 전개된 실학자들의 저작 간행 실태와 1930년대 실학자의 저작 출간 실태 및 현상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조선 후기 유학적 지적 기반에서 탄생한 실학이 근대 지식인이었던 조선학운동 참여 지식인들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소환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1910년 '국망' 이후 식민지 조선에서는 조선고서간행회·조선연구회와 조선광문회를 중심으로 한국 고문헌의 수집·조사 과정에서 조선 후기 실학자의 저작들이 간행되었다. 재조일본인 단체의 한국 고문헌의 간행은 일제의 조선 통치에 대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었다면, 조선광문회는 '국망'에 처한 상황 속에서 일본인 학자들의 고문헌 간행에 대한 '정신적 영역'에서의 대응 차원에서, 우리의 전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6A3A01045347).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교수(hyongae@hanmail.net)

통과 '고유한 문화'를 발견·보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1930년대에는 1941년까지 총 7종의 실학자 저작이 출간되었는데, 대표적인 실학자의 저서는 신조선사에서 간행한 『여유당전서』이다. 1930년대 실학자의 저작간행은 1920년대 이후 더욱 심화되는 일제의 동화정책 내지 내선융화의 이데올로기 강화정책에 대항하는 정신적 대응이었다. 더불어 조선 후기 개혁사상인 실학을 계보화하여 조선학의 범주에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1930년대 『여유당전서』의 간행을 계기로 조선학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조선학=실학의 개념이 정립되었다. 그 중심에는 정인보가 있었으며, 대표적인 실학자는 정약용이었다. 조선학운동 속에서 정약용의 개혁사상은 자신이 성장했던 조선 후기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학술장으로 이식되어 본래 그가 의도하지 않았던 근대성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다른 실학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주제어: 실학, 실학자의 저작, 조선학운동, 정약용, 근대성

머리말

오늘날 한국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실학이라는 용어는 조선 후기의 개혁적 사상을 객관적으로 연구하던 과정에서 명명된 학술용어이다. 실학은 조선 후기 18세기를 전후하여 당시의 사회모순에 대한 반성의 결과로 나타난 한국 유학의 새로운 학풍으로, "유교경전 해석에서 주자유일주의(朱子唯一主義)를 거부하고, 선진시대(先秦時代)의 원시유학에 입각하여 제시된 왕도정치론적(王道政治論的) 개혁사상"[1]을 말한다.

조선 후기의 개혁적 사상으로서 실학을 주목하기 시작한 시점은 개항기부터였다. 당대의 사람들은 국가적 위기 탈출의 방략을 마련하고 개항에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길을 모색하던 과정에서 '조선 후기 사상계의 개혁적 인물'에 대해 일정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신헌(申櫶)이나

1) 조광, 「실학의 발전」, 『한국사』 35, 국사편찬위원회, 1998, 266-267쪽.

강위(姜瑋) 등은 조선 후기 개혁적 인물과 사상의 존재를 인지하고, 자신들이 살고 있던 시대의 격랑을 헤쳐나가는 구국의 방략으로 삼고자 하였다.[2] 대한제국기에는 조선 후기의 개혁적 인물들을 경세가(經世家)나 경제가(經濟家)로 직접 지칭함으로써 그 개혁사상의 성격을 규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개념화하려는 시도가 일어났다. 특히 1905년 을사조약과 1907년 정미7조약 체결 이후로는 일부 지식인들 가운데서 유교구신적 차원에서 '실지학문'을 보국(保國)의 방략으로 생각하였고, 조선 후기의 '경세가'나 '경제가'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국권 회복의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3] 장지연, 박은식, 신채호 등이 이익과 정약용의 학풍을 배우거나 『황성신문』·『대한매일신보』에서 실학자의 개혁론을 소개하고, 필사본으로 전해져 오던 실학자들의 저작들이 신활자(沿活字)라는 근대적 형태의 인쇄매체로 간행되기 시작하였다.[4] 이후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저작은 일제강점기에도 계속 간행되었다.

---

2) 실학에 대한 개항기의 관심에 대해서는 조광, 「개항기 및 식민지시대 실학연구의 특성」, 『韓國實學研究』 7, 2004 참조.

3) 개항기 및 대한제국기의 조선 지식인들이 시폐(時弊)를 교구(矯捄)하고 국가 방어를 논하던 과정에서 앞서 시대의 개혁적 사상가의 존재에 주목하고 그 업적을 참고하고자 한 양상에 대해서는 조광, 위의 글, 214-223쪽 참조.

4) 다음은 1900년대 공간된 실학서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저서명	저자	편자	출판사	출판연도	비고
牧民心書(4책)	丁若鏞	張志淵	廣文社	1902	인간본
牧民心書 正文(1책)	丁若鏞	金宇植	博文社	1904	연활자본
欽欽新書(4책)	丁若鏞	張志淵	廣文社	1901	연활자본
大韓疆域考(2책) (我邦疆域考)	丁若鏞	張志淵 증보	皇城新聞社	1904	연활자본
兒學編	丁若鏞		廣學書館	1908	연활자본
耳談續纂	丁若鏞		徽文館	1908	연활자본
燕巖集	朴趾源	金澤榮		1900	연활자본

* 김영호, 「茶山學研究史序說-茶山實學에 대한 研究成果와 그 問題點」, 『茶山學論叢』, 다산연구원, 1987을 참조·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저작 다수가 일제강점기에 근대 출판물로 재간행되는 현상과 '실학'이 일제강점기에 역사 용어로 설명되기 시작하여 조선 후기 사상계의 개혁적 경향 중의 하나로서 주요 개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그리하여 실학자의 저작들이 간행된 1910년대와 1930년대를 주목하였다.

먼저 강점 초기인 1910년대에 실학자의 저작이 출간되는 현상과 1930년대에 실학자들의 저작이 출간되는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1930년대 전개된 조선학 연구 및 조선학운동과 어떠한 상관관계 속에서 전개되며, 조선 후기라는 전근대사회에서 유학이라는 지적 기반 속에서 탄생한 실학자의 저작들이 자주적인 근대국가 건설의 전통을 복원·계승하고자 했던 조선학운동 참여자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소환되었는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한말 서구열강과 일제의 침략으로 국가 존립의 위기가 고조된 상태에서 조선 후기 실학에서 자주적 근대국가 건설의 전통을 복원·계승하고자 했던 개신유학자들의 사상적·역사적 전통이 1930년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의 조선학운동에 계승되었음을 재확인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Ⅰ. 일제 강점초기 실학자의 저작 출간

1. 재조일본인 단체

일제는 1910년 강점 이후 조선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지배할 것을 천명하고 직접통치에 의한 동화주의를 표방하였다. 이후 일제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는 일시동인, 내선융화, 내선일체 등의 구호 속에서 동화주의로 일

관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동화주의는 프랑스식과는 달랐다.[5]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가 식민지 경영에 의한 이윤의 획득·군사전략상의 거점으로서의 위치를 우선시하면서도 조선을 내지(內地)인 일본과는 일정하게 분리된, 법제적으로 보면 '이역(異域)'으로서 차별된 지역으로 설정한 것이었다. 따라서 일제가 강점초기부터 주장했던 '일시동인', '동화'는 조선을 법제적 이역으로 차별하면서도 조선인을 일본제국의 국민=신민으로 통합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강조된 것이었다.[6]

총독부는 동화주의를 관철하기 위해 먼저 조선의 전통문화 요소를 식민문화의 하부로 재편하기 위한 조사 작업들을 추진하였다. 구관조사, 조선사료조사 및 조선사편찬, 조선고적조사 등 조선의 역사나 전통에 관한 기초조사를 통해 조선인의 동화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7]

한편, 조선총독부의 조사 작업과 병행하여 총독부의 지원하에 민간 차원에서 일본인들이 조선의 전통문화를 장악, 재편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졌다. 먼저, 조선고서간행회(朝鮮古書刊行會), 조선연구회(朝鮮硏究會)와 같은 재조일본인 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의 고전을 다방면으로 조사하여 수집하고 번역·출판하여 간행하였다.

조선고서간행회는 조선총독부에 드나들며 일제의 조선통치를 합리화시키는 데 앞장선 샤쿠오 슌죠(釋尾春芿)가 1908년 8월에 설립한 단체이다.[8]

---

5) 일반적으로, 식민정책으로서 프랑스식 동화주의는 식민지에 대한 '문명화'의 사명을 내세우면서 본국과 동일한 법, 관료조직, 사회조직을 적용한 예를 말한다(權泰檍, 「同化政策論」, 『歷史學報』 172, 2001, 341-349쪽).

6) 이지원, 『한국 근대 문화사상사 연구』, 혜안, 2007, 88-89쪽.

7) 1910년대 일제가 조선의 전통문화 요소를 식민문화의 하부로 재편하기 위한 조사 등에 관해서는 金泰雄, 「1910년대 前半 朝鮮總督府의 取調局·參事官室과 '舊慣制度調査事業'」, 『奎章閣』 16, 1994; 이지원, 『한국 근대 문화사상사 연구』, 혜안, 2007, 97-109쪽 참조.

8) 샤쿠오 슌죠(釋尾春芿, 釋尾東邦, 東邦山人)는 1900년(광무 4)에 한국에 건너와 부

그는 조선잡지사 내에 조선진서간행부(朝鮮珍書刊行部)를 두고 1909년부터 1916년까지 총 28종 83책의 한국 고전을 간행했는데, 원문을 그대로 연활자로 인쇄하여 호화판 장정 '조선군서대계(朝鮮群書大系)'라는 연속물로 출간하였다. 이 가운데 역사서는 『삼국사기』, 『동국통감』, 『대동야승』, 『동문선』 등 45책이 출판되었는데, 『해동역사』, 『동사강목』, 『연려실기술』, 『팔역지(八域志)』(택리지), 『지봉유설』, 『성호사설유선(星湖僿說類選); 곽우록(藿憂錄)』, 『발해고』, 『아언각비』 등 8책에 달하는 실학자들의 저작이 포함되어 있다.[9] 샤쿠오는 조선의 과거 역사를 모르면서 현재나 미래는 논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조선통치에 임하는 관료들은 먼저 식민자의 입장에서 여러 나라의 보호정치와 식민사의 실태를 자세히 알아야 한다고[10] 주장하였다. 이러한 샤쿠오의 발언은 조선고서간행회가 한국 고전을 간행한 의도를 잘 보여준다.

조선연구회는 호소이 하지메(細井肇)가 1910년에 설립하였으나 1911년 8월부터 아오야기 츠나타로(靑柳綱太郎)가 중심이 되어 운영한 재조일본인 단체이다. 아오야기 츠나타로는 대표적인 일본인 조선연구자로서 민간에서 총독부의 조선 지배를 측면에서 지원한 인물이다.[11] 조선연구회에서는

산의 개성학교, 대구의 일어학교 교사를 역임했으며, 이후 경성일본인민단 제1과장으로 경성제일고등여학교, 경성중학교 설립에도 참여한 인물이다. 그는 1907년에 잡지 『朝鮮』을 발행하였고, 1908년에는 월간잡지 『滿洲及朝鮮』을 창간하였다(『朝鮮人士興信錄』, 京城, 朝鮮新聞社, 1935, 228쪽). 샤쿠오 슌죠와 조선고전간행회에 대해서는 최혜주, 「식민지 시기 재조일본인의 출판활동과 조선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5, 2018; 박영미, 「일본의 조선고전총서 간행에 대한 시론」, 『漢文學論集』 37, 2013 참조.

9) 櫻井義之, 『朝鮮研究文獻誌:明治大正編』, 龍溪書舍, 1979; 서신혜, 「일제시대 일본인의 古書刊行과 호소이 하지메[細井肇]의 활동-고소설 분야를 중심으로-」, 『溫知論叢』 16, 2007, 393-394쪽 재인용.

10) 「朝鮮研究の聲」, 『朝鮮』 4-1, 1909, 8-9쪽.

11) 호소이 하지메와 아오야기 츠나타로(靑柳綱太郎, 靑柳南冥)에 대해서는 朝鮮公論社, 『朝鮮紳士明鑑』, 1917; 최혜주, 「아오야기(靑柳綱太郎)의 來韓활동과 植民統

1911년부터 1918년까지 총 3기에 걸쳐서 56책의 한국 고전과 기타 역사·문화서를 '조선고서진서(朝鮮古書珍書)'라는 이름으로 번역·출간하였는데, 『연암외집』(열하일기), 『지봉유설』, 『발해고』, 『조선박물지』(산림경제), 『이순신전집』, 『경세유표』, 『목민심서』 등 실학자의 저작이 다수 포함되었다.[12]

조선고서간행회의 '조선군서대계'가 한국의 고전을 원본을 그대로 발행한 것이라면, 조선연구회의 '조선고서진서'는 원문과 일본어 번역을 함께 출판했다는 점이 다르다.

총독부의 지원 속에서 이루어진 조선고서간행회와 조선연구회의 한국 고서간행은[13] "옛 조선에서 생성된 자료를 발견해, 그것을 새로운 우리 조선의 경영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고,[14] "조선의 옛 책을 섭렵하여 구시대의 제도문물을 연구하는 것은 장래에 정사를 베푸는 데에 얼마간의 논결(論決)을 얻기 위한"[15]것이었다. 따라서 그 성과는 조선 문화를 식민지적인 것으

治論」, 『國史館論叢』 94, 국사편찬위원회, 2000; 윤소영, 「호소이 하지메(細井肇)의 조선인식과 '제국의 꿈'」, 『한국근현대사연구』 45, 2008; 최혜주, 「일제강점기 조선연구회의 활동과 조선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2, 2005 참조.

12) 한편 호소이 하지메가 1920년 설립한 자유토구사에서 총서 '통속조선문고'에 정약용의 『雅言覺非』와 『牧民心書』가 1922년에 간행되었다. 자유토구사 설립에 대해 호소이는 3·1운동이 일어나자 "조선 문제 해결에 이 한 몸 바치기로 굳게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자유토구사는 서울에 지부를 두고 두 곳을 왕래하면서 조선 관계 팜플렛과 책을 여러 차례 출판하였다. 자유토구사에서는 '총독부의 재정 지원으로 通俗朝鮮文庫' 12권(1921-1922)과 '鮮滿叢書' 11권(1922-1923)을 간행하였다(櫻井義之, 『朝鮮研究文獻誌-明治大正期』, 東京, 龍溪書舍, 1979, 趙東杰, 『現代韓國史學史』, 나남출판, 1998, 279쪽).

13)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 총독은 아오야기 츠나타로와의 대담에서 "조선의 연구와 조사는 총독부 정치 정책의 제공자이자 助成者가 되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의미에서 그대의 조선고서 번역과 샤쿠오의 고서간행에 보조하고 있다"고 밝혔다(靑柳南冥, 『總督政治史論』, 京城新聞社, 1928, 267쪽).

14) 大村友之丞, 「序文」, 『角于先生實記』, 朝鮮研究會, 1911.

15) 「序」, 『朝鮮古書書目』, 朝鮮古書刊行會, 1911.

로 재편하기 위한 정책적 의도에 부합된 것이 되었다.[16] 따라서 재조일본인 단체가 주도한 실학자들의 저작물을 포함한 고서간행은 결과적으로 일제의 식민사학 형성의 기초자료가 되었다.

2. 최남선과 조선광문회

1910년대 실학서는 조선인에 의해서도 근대 출판물로 간행되었다. 최남선의 조선광문회(朝鮮光文會)가 주도하였다. 최남선은 1906년 4월부터 1907년 3월까지 일본에 유학하면서 근대 학문의 세례를 받았으며, 일본의 출판물을 통해 다양한 서구 학문을 습득한 인물이다. 그는 일본 유학시절 일본에 한국의 전통문화가 소개·보존·연구되는 상황과 도쿄(東京)의 간다(神田)와 혼코(本鄕)의 서점가 및 일본 출판계의 고전 복간 상황을 목도하고 받은 충격과 감동으로 조선광문회를 설립하게 되었다.[17] 그는 귀국 직후인 1908년에 신문관(新文館)이라는 출판사를 설립하여 『소년』을 시작으로 이후 20여 년 동안 7종의 잡지와 신문을 발간하는 등 왕성한 출판 활동을 전개했다.[18]

---

16) 자유토구사는 간행 서적 후미에 있는 「自由討究社趣旨書」와 「自由討究社規則摘錄」에서 단체 설립 이유를 '3월 소요' 즉 3·1운동의 발생은 한마디로 조선에 대한 '무이해(無理解)'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면서 조선인의 역사와 습속과 심성 등에 대한 다양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서를 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17) 최남선은 에도(江戶)박물관에 소장된 광개토대왕기적비(廣開土大王紀蹟碑) 탁본과 일본의 대표적인 도서관의 하나였던 가나자와문고(金澤文庫) 소장 조선 고전을 보고 외국인에 의해 조선의 전통문화가 소개·보존·연구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일본 동경의 간다와 혼코의 서점가와 일본 출판계의 고전 복간 상황을 목도하고, 고전간행을 통하여 선조의 공적을 계승하며 영원무궁한 발전의 길을 걷고 있는 일본 지식인들의 활동상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였다(崔南善, 「余의 光文會 發起者의 一人이 된 衷情으로 天下同志者에 敢告홈」, 『朝鮮光文會告白』, 朝鮮光文會, 연도 미상).

18) 당시 최남선은 한말 대한제국의 '자강'을 책임질 '주동력'인 청년층에게 그 자신이 수련받은 '근대 학문'을 소개하는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근대적인 출판 활

조선광문회는 1910년 12월 최남선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것으로, 한말 계몽운동의 원로들인 유근(柳瑾), 김교헌(金敎獻), 박은식, 주시경, 임규(林圭), 장지연, 현채 등과 주시경의 제자인 김두봉(金枓奉), 권덕규(權悳奎) 등이 참여하였다. 조선광문회의 주요 활동은 한국 고전 간행사업과 자전 편찬이었다.

「조선광문회 규칙」 제1장 목적 및 방법에는

> "제1조, 본회는 조선 구래(舊來)의 문헌, 도서 중 중대하고 긴요한 것을 수집, 편찬, 개간(開刊)하야 귀중한 문서를 보존전포(保存傳布)함으로 목적함.
> 제2조 본회는 상조(上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야 각가명저(各家名著)와 내외비장(內外秘藏)을 온갖 방법으로 입수하야 가장 짧은 시일에 가장 근소한 값으로 가장 희귀한 도서를 가장 정밀하게 활인(活印) 혹 석인(石印)하야 가입하는 회원에게 특별히 저렴한 실비를 받고 정기 혹 부정기로 배포함."[19]

이라고 하여 조선광문회의 설립 목적이 한국의 고서를 수입하고 편찬·간행하여 귀중한 문서를 보존하고 알리는 데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간행할 도서는 조선의 사기(史記)·지지(地誌)를 비롯하여 전장(典章)·헌모(憲謨)·가사(歌詞)·시문(詩文)·경전(經典)·병사(兵事)·민업(民業)·교학(敎學)·예술(藝術)·풍속(風俗)·전기(傳記)·화상(畫像)·지도(地圖) 등 다양한 분야의 것이었다.[20] 고전발간의 주요 실무자는 장지연·유근·이인승(李寅承)·김교헌 등이었다. 문헌들은 '조선총서(朝鮮叢書)'로 간행되었는데, 처음에는 190여

동은 '신문화 운동'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류시현, 「崔南善의 '近代' 인식과 '朝鮮學'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21-22쪽).

19) 「朝鮮光文會規則」, 『朝鮮光文會告白』, 조선광문회, 연도 미상, 2-3쪽.

20) 위의 책, 3쪽

종의 도서를 발행할 계획을 하였으나 계획한 목록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고전이 24종 46책, 기타서 및 간행연도 미상이 11종 13책으로, 총 35종 59책이 간행되었다.[21]

최남선이 언급하였듯이 조선광문회의 고전간행은 "신문명의 기초를 존고(尊固)히 하기 위하여 구교화(舊敎化)의 지질(地質)을 심사하고 자신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라는 사방의 요구"에 응한 것이고, 신문명의 도래 속에서 조선의 역사와 언어와 도덕을 자주적·근대적·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설명하고자 한 것[22]에 목적이 있었다. 또한 통감부시기부터 일제가 추진한 조선의 구관조사 및 고적조사 등의 사업과 총독부의 지원으로 재조일본인 단체들이 한국의 고서를 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제 및 일본인들과 대항하는 문화적 대결의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이는 최남선이 조선광문회의 사업에 대하여 "일본으로 인해 오천년의 성현과 철인의 빛나는 공열(恭悅)이 매몰되는 것을 탄식하여 스러져가는 민족문화를 현창하고자 한다"[23]고 천명한 데서도 잘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조선광문회의 고전간행사업은 일본인에 의한 조선 민족문화 장악을 반대한 조선인의 문화적 대응이었으며, 정치적 민족국가의 좌절 속에서 민족의 자아를 확인하는 방법이었다.[24] 이런 점에서 조선광문회를 통한 최남선의 활동은 그가 1922년부터 본격적으로 천명할 조선학 연구의 전사(前史)라고 할 수 있다.[25]

---

21) 「朝鮮光文會刊行書目槪略」, 『朝鮮光文會告白』에 따르면 전체 간행 예정 도서는 192종으로, 역사류 29종, 지리 및 지도류 30종, 문학류 15종, 어문류 13종, 기행류 10종, 휘찬류 10종, 전기류 9종, 소설류 3종 등이었으며, 발간 배포된 '조선총서'는 23종 47책으로, 예정 목록의 13%에 해당하였다.

22) 崔南善, 「十年」, 『靑春』 14, 1918. 6, 8쪽.

23) 「朝鮮光文會告白」, 『少年』 3-9, 1910. 12, 56쪽.

24) 이지원, 『한국 근대 문화사상사 연구』, 혜안, 2007, 146-147쪽.

25) 류시현, 「崔南善의 '近代' 인식과 '朝鮮學'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34쪽.

총 35종 59책의 조선광문회 간행 도서 가운데 조선 후기 실학자 7명의 저서 11종이 포함되었다. 박지원의 『열하일기』(1911), 이중환의 『택리지』(1911), 신경준의 『도리표』(1912), 정약용의 『아언각비』(1912), 『경세유표』(1915), 한치윤의 『해동역사』(1912), 『해동역사 속』(1913) 이긍익의 『연려실기술』(1912-1915), 『연려실기술 별집』(1912-1914), 유득공의 『이충무공전서』(1918, 신문관 출간) 등이다.

실학자의 저작들이 조선광문회의 간행 도서 속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국망'이라는 비극적 상황에서 조선 후기 사상계의 개혁적 인물에 대한 관심이 당대에 더욱 증대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조선광문회의 인사들 가운데 대한제국기 이래 실학사상을 계승한 바탕 위에서 신구학 절충론을 주장하던 『황성신문』 계열의 개신유학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도 실학서의 발간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26)]

조선광문회는 1910년대 초반에 불어닥친 경제불황과 일제의 무단통치로 출판 수지가 악화되면서 1915년에 고전간행 사업을 중단하고, 이후에는 주로 사전편찬 작업을 하였다. 그러다가 1919년 3·1운동으로 최남선이 체포되어 서대문 감옥에 투옥되고, 사전편찬을 주도했던 김두봉이 1919년 4월 중국으로 망명하고, 이규영(李奎永)이 1920년 1월 사망하면서 조선광문회는 해체의 길을 걷게 되었다.

다음은 1910년대 간행된 조선 후기 실학자의 저작 목록을 표로 작성한 것이다.

---

26) 조선광문회에 참여했던 인물들은 첫째, 광문회에서 고전간행과 사전편찬을 주도했던 인사들은 대부분 대종교 신자였다는 점, 둘째, 주시경 학파의 핵심 인사들이었다는 점, 셋째, 조선광문회의 고문으로 실학사상을 계승한 바탕 위에서 신구학 절충론을 주장하던 『황성신문』 계열의 개신유학자들이었다(오영섭, 「朝鮮光文會研究」, 『朝鮮史學史學報』 3, 2001, 107-108쪽).

〈표 1〉 1910년대 간행된 조선 후기 실학자의 저작 목록

번호	저서	저(편)자	조선광문회 (1910)	조선고서간행회 (1908)	조선연구회 (1910)	비고
1	해동역사 5책 해동역사 속	한치윤	1912, 1913	1911	X	
2	동사강목	안정복	X	1911	X	
3	연려실기술 8책 연려실기술 별집 3책	이긍익	1912–1915 1912–1914	1913	X	
4	택리지	이중환	1911	팔역지 1910	X	
5	도리표(道里表)	신경준	1912	X	X	
6	산경표(山經表)	신경준	1913	X	X	
7	반계수록	유형원	X	X	X	
8	여유당집	정약용	X	X	X	
9	임원십육지	서유구	X	X	X	
10	열하일기	박지원	1911	X	연암외집 1915	
11	담헌일기	홍대용	X	X		
12	지봉유설	이수광	X	1915	1916	
13	성호사설	이익	X	성호사설유선; 곽우록, 1915	X	
14	동국지리지	한백겸	X	X	X	
15	발해고	유득공	X	1911	1911	
16	오주연문장전산고	이규경	X	X	X	
17	아언각비	정약용	1912	1911		자유토구사, 1922
18	산림경제	홍만선	X	X	조선박물지 1914	
19	이충무공전서	유득공	1918	X	이순신전집 1916	신문관 (新文館)
20	경세유표	정약용	1915	X	1911	이건방 서문 (방예초본서)
21	목민심서	X	X	X	1911	자유토구사, 1922
22	대한강역고	정약용/ 장지연 편	X	X	1915	

*출전: 「조선광문회간행서목개략」, 『조선광문회고백』; 『조선광문회제일기간행기정서』; 오영섭, 「조선광문회 연구」, 『조선사학사학보』 3, 2001; 박영미, 「일본의 조선고전총서 간행에 대한 시론」, 『한문학론집』 37, 2013; 최혜주, 「일제강점기 조선연구회의 활동과 조선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2, 2005; 국립중앙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대백과사전』.

〈표 1〉을 통해서 1910년대에 실학자의 저작들은 한·일 양국인에 의해서 발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재조인본인단체의 한국 고전발간과 함께 먼저 시작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조선광문회에서 이루어졌다. 간행된 1910년대 실학자의 저작들은 당시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27] 당시에는 총 19명의 실학자가 저술한 24편의 실학서가 간행되었다. 조선광문회에서는 실학자 7명의 저서 11종이 간행되었고, 고서간행회에서는 실학자의 저서 8종이, 조선연구회(자유토구사 포함)에서는 9명의 실학자의 저서 9종이 발간되었다.

Ⅱ. 1930년대 실학자의 저작 출간과 조선학의 부흥

1. 1930년대 실학자의 저작 출간

1920년대 일본인에 의한 실학자의 저작은 총독부의 재정지원으로 호소이 하지메가 1920년에 설립한 자유토구사에서 '통속조선문고(通俗朝鮮文庫)'에 정약용의 『아언각비』와 『목민심서』가 1922년에 간행된 것으로 중단된다. 3·1운동이 일어나자 "조선 문제 해결에 이 한 몸 바치기로 굳게 결심했다"라고 자유토구사의 설립자 호소이가 밝힌 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유토구사의 한국 고서의 발간은 일제의 식민정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었다.

27) 실학자의 저서 간행은 간행한 측이 의도한 바에 따른 것이겠지만, 한치윤의 『해동역사』, 이긍익의 『연려실기술』, 이중환의 『택리지』(팔역지), 박지원의 『열하일기』(연암외집), 『이충무공전서』(이순신전집), 정약용의 『경세유표』 등이 중복되었다는 점에서 당시 한국 사회에서 공유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대한제국기에 이미 『황성신문』등의 논설을 통해서 고서의 간행과 수집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도 있고, 한국의 고전 출판과 수집에 관한 광고 등이 게재되기도 하였다(『황성신문』 1903.2.28., 4.14-5.8).

조선인에 의한 실학서의 발간은 1929년 문광서림에서 『성호사설유선』을 출간하면서 재개되었다. 〈표 2〉에서와 같이 이후 국내에서는 해방 때까지 총 7종의 실학서가 출간되었다. 1910년대에 비해 저서의 종류는 줄었으나 내용적인 면에서는 규모가 확대되고 심화되었다. 1930년대를 전후로 국내에서 발간된 조선 후기 실학자의 저작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1930년 전후 출간 조선 후기 실학자의 저작 목록

번호	서명	저자	편자	교열자	권 책	간행년도	출판사	비고
1	성호사설유선	이익	안정복	정인보	4권 3책	1929	문광서림	연활자본
2	연암집	박지원	박영철		17권 6책	1932	발행처 불명	연활자본
3	완당선생전집	김정희	김익환 (金益煥)	김익환 홍명희	10권 5책	1934	영생당 김익환 서 정인보 서	연활자본
4	여유당전서	정약용	김성진 (김성진)	정인보 안재홍	154권 76책	1934 –1938	신조선사	연활자본 정인보 서
5	담헌서	홍대용	洪英善 (홍영선)	홍명희	14권 7책	1939	신조선사 정인보 서	연활자본 정인보 서
6	여암전서	신경준	신재휴 (申宰休)	정인보 김춘동 (金春東)	17권 7책	1939 –1940	신조선사	연활자본
7	누판고	서유구	李鍾萬	홍명희	7권 7책	1941	대동출판사	연활자본

『성호사설유선』은 『성호사설』을 이익의 제자 안정복이 10권 10책으로 재정리한 것이다. 조선고서간행회에서 '조선군서대계'의 하나로 1915년에 상·하 2책으로 출간한 것을 1929년 정인보의 교열을 거쳐 선장본(5책)과 양장본(상·하 2책)으로 문광서림에서 출간하였다. 저자의 자서(自序), 변영만(卞榮晩)의 서문과 정인보의 서문이 더 붙여졌으며, 부록으로 「곽우록」이 추가되었다. 정인보는 『성호사설유설』 서문에서 조선 후기의 학풍을 '의독구실지학(依獨求實之學)'이라는 설명하면서, 유형원–이익–정약용으로

이어지는 계통을 제시하였다.[28] 그리고 교간 후기에서는 이익을 '사학(史學)으로 근거를 삼아 내외를 안 참학자(眞學者)'로 평가하였으며, 자신의 과제를 고서 수집으로 정하고, 하곡(霞谷) 정제두(鄭齊斗)·심천(石泉) 신작(申綽)·순암(順菴) 안정복(安鼎福)·대연(岱淵) 이면백(李勉伯)의 저술 출간을 차후의 과제로 삼았다.[29]

1932년에 간행된『연암집』은 박영철[30]이 연암 후손가에 전해오던 가장본 17권 6책을 정리하여 서울에서 연활자로 간행한 것이다. 구한말의 역사학자이자 유학자인 김택영이 중국에서 신활자로 간행하여 국내에서 유통시킨『중편(重編) 박연암선생문집』을 보완한 것으로, 9종의 소집(小集)을 비롯하여『열하일기』와『과농소초』에 수록되어 있는 321편의 작품을 추가로 수록한 연암전집이다.[31]

『완당선생전집』은 김정희의 현손인 김익환이 편집하여 1934년에 영생당에서 간행한[32] 추사 김정희의 문집이다. 1868년(고종 5)에 문인 남병길(南秉吉) 등이 편집 간행한『완당집』,『완당척독(阮堂尺牘)』및『담연재시집(覃揅齋詩集)』등을 합본한 것으로 김익환과 홍명희가 교열하였고, 김익한과

28) 鄭寅普,『星湖僿說類選』,「序」, 1929.

29) 「『星湖僿說』을 校刊하면서」,『澹園鄭寅普全集』2, 19983, 연세대학교출판부, 107-108쪽. 이 과제는 1931년에 있었던「朝鮮古典解題」로 수행되는데, 정제두·신작·이면백의 저서가 반영되었다.「朝鮮古典解題」는 1931년 17회에 걸쳐『동아일보』에 연재되었다.

30) 박영철(1879-1939)은 일본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대한제국의 군인이자 일본군의 고위 장교, 전역 이후에는 강원도 지사, 함경북도 지사 등을 지냈고, 관직 은퇴 이후에는 기업인으로 활동하였다. 일제의 침략정책에 호응하고 앞장선 친일파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문화애호가이자 수장가였다(김상엽,「『고박영철씨기증서화류전관목록』을 통해 본 多山 朴榮喆(1879-1939)의 수장활동」,『문화재』44, 2011).

31) 정재철,「김택영의『연암집』편찬과 그 의미」,『韓國漢文學硏究』63, 2016, 140-142쪽.

32) 송수영,「추사 김정희 연구자료의 고찰과 제언」,『서예학연구』19, 2011, 272쪽.

정인보가 서문을 작성하였다.[33]

1930년대 실학자의 저작 출간의 중심에는 신조선사(新朝鮮社)가 있었다. 신조선사는 신간회 해소와 곧이어 발생한 『조선일보』 발행권 분쟁을 겪으면서 『조선일보』에서 퇴사한 직원들이 안재홍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설립한 회사로, 잡지 『신조선(新朝鮮)』(1934년 9월호부터 1936년 1월 14호까지)을 인쇄·발행한 곳이다. 신조선사에서는 잡지 발행 외에 식민지 공론장에서 전개된 조선학의 학술적인 성과를 수용하여 흩어져 있던 조선 후기 실학자의 저작 수집하고 출판하였다.[34]

『여유당전서』는 1930년대 간행된 대표적인 실학자의 저서이다. 그동안 필사본으로 전해오던 정약용의 저술들을 그의 외현손 김성진이 처음으로 집대성하여 완간한 것으로,[35] 1935년 '다산서세백년기념(茶山逝世百年紀念)' 사업의 일환으로 1934년 10월부터 간행에 착수하여 1938년에 완간되었으며, 7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였다. 당시까지 정약용의 유고는 개별적으로 출간되었을 뿐[36] 전집 형태로 묶여서 출간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

33) 『완당선생전집』과 『담헌서』에 정인보가 서문을 쓴 것으로 보아, 홍명희가 『완당선생전집』과 『담헌서의 교열을 맡게 된 것은 정인보의 청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강영주, 「碧初 洪命熹와 朝鮮學運動」, 『人文科學硏究』 5, 1996, 114-117쪽).

34) 1930년대 신조선사에 간행한 고문헌은 총 6종인데, 이 가운데 조선 후기 실학서가 아닌 것은 『금사시초(錦史詩鈔)』(1937년)와 『우담선생문집(愚潭先生文集)』(1937년)이다. 『우담선생문집』은 고문헌이긴 하지만 영주에서 인출한 목판본으로 다른 출판물과 형태서지적 특징이 확연히 구별된다. 발행소만 신조선사일 뿐, 신조선사의 출판 활동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 『금사시초』는 신조선사에 도움을 주었던 具乙會의 작고한 선친의 문집이었다(장문석, 「식민지 출판과 양반-1930년대 신조선사의 고문헌 출판 활동과 전통 지식의 식민지 공공성」, 『民族文化硏究』 55, 2014, 359쪽).

35) 『여유당전서』의 완간 과정에 대해서는 장문석, 「식민지 출판과 양반-1930년대 신조선사의 고문헌 출판 활동과 전통 지식의 식민지 공공성」, 『民族文化史硏究』 55, 2014, 363-364쪽 참조.

36) 물론 정약용의 저작 가운데 일부는 조선 후기부터 개인과 지방관청에 의해 필사되거나 목판으로 인출되어 유통되었고, 개항기를 전후해서도 기정진, 강위, 신관호

었다. 1938년『여유당전서』의 완간을 알리는『동아일보』의 기사에서는 당시 조선인 사회에서『여유당전서』의 완간을 얼마나 크게 받아들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 "그런데 이상 귀중한 모든 문헌이 세상에 많이 선포되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거금 5년 전에 경성부 내 가회정(嘉會町) 208번지에 있는 신조선사에서 여유당전서-즉 정다산선생 전집 간행에 착수하야 이래 5년간 모든 고난을 무릅쓰고 총질수 400부의 76책이 완간되어 금 27일에 최종권의 배본을 마치었다 한다. 이것은 정다산 선생의 위대한 저서를 세상에 재현시킨 문화적 의의가 크거니와 76책을 약 3만 5천 원의 거대한 경비를 들여서 5개년 계획으로 완성하였다는 것은 조선 출판계에 한 신기원을 지을 것이다. … 그리고 동 신조선사에서는 이『여유당전집』이 끝난 후계 사업으로 양눌재(梁訥齋)·신여암(申旅庵)·홍담헌(洪湛軒) 전서의 간행계획을 세우고 벌써 인쇄에 착수하야 고문헌 발간의 거룩한 사업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한다."[37]

당시 조선인 사회에서『여유당전서』의 출간은 '조선 출판계의 금자탑', '조선 출판계의 한 신기원'으로 받아들여졌고, 이어지는 실학자 저작의 출간 시발점이 되었다. 신조선사는『여유당전서』의 출간에 이어 후계 사업으로 눌재 양성지, 여암 신경준, 담헌 홍대용의 전서 사업을 계획하여, 이듬해인 1939년부터 1940년까지 홍대용의『담헌서』와 신경준의『여암전서』를 발간하였다.

『담헌서』는 홍대용의 문집을 편찬한 것으로, 홍대용의 5세손인 홍영선의

등과 같은 전통적 인물들에 의해서 정리·편찬된 바가 있었다. 또한 대한제국기는 물론 이후 20세기에 들어서도 정약용의 저작들은 광문사, 황성신문사, 조선광문회 등을 통해서, 그리고 식민지 권력인 조선총독부 및 재조일본인 학술단체에 의해서도 정리되거나 간행된 바 있었다.

37)「丁茶山全書; 朝鮮出版界의 金字塔 四百部 七十六卷을 完刊」,『동아일보』 1938.10.28.

편집, 벽초 홍명희의 교열을 거쳐서 1939년에 신조선사에서 7책의 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 정인보도 『담헌서』의 편집과 간행에 참여했는데, 그는 「담헌서 서(序)」에서 홍대용의 학술사상을 “지금 선생의 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주해수용(籌解需用)』이 있고, 『임하경륜(林下經綸)』이 있는데, 혹은 기하와 산수에 정통하고, 혹은 정치와 법률에 공을 들인 것으로 모두 학생들을 돕는 학문이다. 또 『의산문답』이 있는데, 이는 오로지 근본과 말단을 찾아 밝히고 남과 나를 분석해 놓은 것으로,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것이었다.”라고 언급하며, 홍대용을 걸출한 선비로 평하였다.[38]

신경준의 『여암전서』는 1939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7회에 걸쳐 간행되었다. 신경준이 남긴 글은 후손들에 의해서 1910년에 이미 『여암유고(旅菴遺稿)』로 묶인 바 있었지만, 일부였다. 신조선사의 『여암전서』는 『여암유고』 간행에 참여했던 5세손 신재휴(申宰休)가 편찬하고, 정인보와 김춘동의 교열로 간행되었다. 정인보가 직접 후손들을 방문하여 집안에 내려오는 원고를 발견하고, 그 원고를 참고하여 문집 원고를 교정하였다. 따라서 신조선사가 간행한 『여암전서』에는 『여유당전서』, 『담헌서』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활자화되지 못했던 다수의 저작들이 포함되어 간행되었다.

이후 1941년에 실학자 서유구의 『누판고』가 간행되었다. 『누판고』는 서유구가 국왕 정조의 명에 따라 18세기 후반 조선에 존재했던 전국 각지의 공사 책판을 총정리·목록화한 것을 대동출판사(大同出版社)[39]에서 근대활

38) 鄭寅普, 「湛軒書序」, 『湛軒書』. “今先生之書 其最要者 有曰籌解需用 有曰林下經綸 或精幾何算數 或劬心政法 皆佐民之學 而又有曰醫山問答 則專以覈本剽 而析人己在 當時所僅見者 嗚呼 豈非豪傑之士哉”

39) 『누판고』는 전국 소재 책판의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책판의 내용에 대략적인 해제를 제시한 것으로 18세기 후반 조선의 책판에 대한 정보서로 평가된다(정효훈, 『누판고(縷板考)의 지식 세계와 조선 학술」, 『한국문화』 89,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20). 한편, 『누판고』의 편자인 이종만(李鍾萬)은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조선인 광업가로, 금광 경영을 통해 모은 자금을 가지

자로 간행하였다. 이후 실학자의 저작 출간은 해방 때까지 더이상 없었다.

1930년대 실학서의 간행은 정인보, 안재홍, 홍명희, 김춘동이 주도하였다. 정인보는 『성호사설유서』·『여유당전서』·『여암전서』의 교열에 참여했고, 『완당선생전집』·『담헌서』의 간행과 편집에도 관여하였다.[40] 박영철이 편찬한 『연암집』과 1941년 대동출판사 간행 『누판고』를 제외하고 총 7권 중 5권 모두를 관여하였다는 점에서 1930년대 실학자의 저서 출간은 정인보가 주도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재홍은 정인보와 『여유당전서』의 출간을 주도하였고, 교열에 참여하였다. 홍명희는 『완당선생문집』·『담헌서』·『누판고』의 교열에 참여하였다. 김춘동은 정인보와 함께 『여암전서』의 교열에 참여하였다.

1930년대 실학자의 저작 출간에서 주목되는 점은 첫째, 1910년대 실학자의 저작들이 고전의 수집·발간 차원에서 간행되었고, 발췌본의 형태나 개별적인 간행이었다면, 이 시기에는 전집 형태의 거질로 공간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1930년대 들어와 조선 후기 실학자의 저작이 전집의 형태로 정리되고 간행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둘째, 1910년대 조선광문회의 실학서를 포함한 고서간행이 당시 식민권력 및 재조일본인 연구자들의 조선관련 학술활동을 염두에 두고 '정신적

고 그동안 꿈꾸어 오던 大同思想에 기반한 이상사회 건설, 보다 구체적으로는 열악한 한국인의 생활과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혁하는 일에 앞장선 인물이다((국사편찬위원회, 「과학과 기술」, 『신편한국사』 51, 2002, 287쪽). 대동출판사는 1938년 1월부터 '농민문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전문잡지'인 월간잡지 『農業朝鮮』을 발간한 출판사이다(「大同出版社에서 『農業朝鮮』을 月刊으로 발행」, 『每日申報』 1937.12.19).

40) 『담헌서』의 서문(湛軒書序)은 정인보가 쓴 것이다. 정인보가 쓴 『담헌서』 서문에 "담헌서는 홍대용 덕보 선생이 지은 것이다. 예전에 15책으로 나눈 것을 지금 책을 약간 합쳐서 7책으로 하고, 편명과 유차의 순서는 모두 목록과 같이 하였다"고 되어 있다.

대응' 차원에서 조선에 관하여 전방위적인 분야의 문헌들을 수집·간행했다고 한다면, 1930년대의 그것은 김춘동의 발언에서도 드러나듯이 "나라 잃고 일제에 억압당한 형편에 장래에 있을 독립의 사상적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일제의 동화정책 내지 우리문화 말살정책의 반동으로, 스러져가는 고유문화를 지탱하려는 필사의 노력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41]이었다. 이는 1920년대 이후 더욱 심화되는 일제의 동화정책 내지 내선융화의 이데올로기 강화정책에 대항하는 정신적 대응이자 몸부림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920년대 경성제국대학 설립 이후 제국대학과 식민지 미디어 아카데미 사이의 복합적인 관련 속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던 '조선학'이라는 당대의 학술을 염두에 둔 간행이었다.

셋째, 『여암전서』를 간행하면서 신조선사가 작성한 「신여암선생전서간행취지서」에서 성호 이익-여암 신경준-다산 정약용으로 이어지는 조선 후기 실학자의 계보를 언급하면서 '조선학'을 언급하고 있는 데서 볼 수 있듯이[42], 1930년대 실학서의 간행은 조선 후기 개혁사상인 실학을 계보화하여 조선학의 범주에서 인식하게 되었으며, 민간차원에서의 조선문화 연구의 연장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43]

넷째, 실학자의 저작 출간은 조선학 연구 및 조선학운동의 전개와 함께

41) 김춘동,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盞散稿)에 취하여-노두생애(老蠹生涯)』, 『민족문화연구』 1, 1964; 『운정산고』,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7, 425-426쪽; 장문석, 「식민지 출판과 양반-1930년대 신조선사의 고문헌 출판 활동과 전통 지식의 식민지 공공성」, 『民族文化史研究』 55, 2014, 353쪽 재인용.

42) [부록] 「申旅庵先生全書刊行趣旨書」; 장문석, 「식민지 출판과 양반-1930년대 신조선사의 고문헌 출판 활동과 전통 지식의 식민지 공공성」, 『民族文化史研究』 55, 2014, 360쪽에서 재인용.

43) 조선학운동이 전개되던 1934-1935년의 시점에서 문일평은 향후 조선학운동에 관한 낙관적인 전망을 피력하면서 민간 차원에서의 조선 문화 연구에 관해 최근 학계에서 古書 출판이 차차 유행하려는 조짐이 보인다고 평가하였다(문일평, 「文化愛와 공덕」, 『조선일보』 1934.10.15).

이루어진 것이다. 조선학운동은 한국 역사의 문화 자산과 성과를 부정하고 문명개화론, 서구화론 등으로 상징되는 서양 근대 사상과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입하여 이를 추종하는 경향을 비판하면서, 실증과 고증을 기반으로 한국 역사와 문화의 주체성과 독자성을 탐구하고, 민족을 단위로 하는 독자적인 한국 근대 국민 국가 수립의 지향과 역사를 실학을 통해 입증하려 했다.[44] 즉, 우리 역사 속에서 근대성을 찾아냄으로써 일제의 식민지배를 사상적·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제 관학의 식민사관 및 식민지배 이데올로기를[45] 극복하기 위한 시도 속에서 1930년대에 실학자의 저작 출간과 탐구가 보다 심도있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2. 조선학운동의 전개와 다산 정약용 사상의 근대적 소환

1930년대 전반기 이후 식민지 조선에서는 조선인식의 중요성이 광범하게 유포되고 조선연구의 분위기가 크게 고조되었다. 조선의 지성계는 식민지적 제약성에도 불구하고 조선학운동이라고 불리는 문화운동을 전개하였다.[46] 당시 학계의 일부에서 조선학의 개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

44)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조선학운동」(http://contents.history.go.kr, 2021년 6월 7일 접속).

45) 1919년 3·1운동을 경험한 일제는 1920년대 중반부터 내선융화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단행했다. 1925년 총독 직속으로 조선사편수회를 설치함으로써 관 주도의 식민주의 역사학을 확산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조선사편수회는 식민사관에 입각하여 한국사를 왜곡한 『조선사』를 1932년부터 1938년까지 전 37권으로 완간하였다. 또한 청구학회, 경성제국대학 등과 연계하여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왜곡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조범성, 「1930년대 靑丘學會의 설립과 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7, 2021 참조.

46) '조선학'의 개념과 연구방향에 대한 모색은 茶山逝世 99·100주년 기념사업 이전부터 이미 제기된 바 있다. '조선학'이란 용어는 1920년대 초반에 최남선이 맨 처음 제안하였고, 1920년대 말에 정인보가 조선 후기 실학자에 대한 저술을 해제하면서 조선학의 개념을 정리한 바 있었다(『동아일보』 1934.9.11, 「朝鮮硏究의 機運에 際하야 (一) 朝鮮學은 어떠케 規定할가 白南雲氏와의 一問一答[肖 : 白南雲((T

지만, 조선학이라는 용어는 당시 민족주의 진영에 속하는 인사들 사이에서 널리 수용되어 갔다.

1930년대 초, 좌우합작을 통해 민족의 활로를 모색하려던 신간회운동이 실패로 돌아가고 식민지 조선에서 비타협적인 민족운동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자 신간회의 해체에 반대한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차선책으로서 문화운동'론이 모색되었다. 정치적 약진이 불리한 상황에서 '최선(最善)한 차선책'[47]으로서 문화운동론에 대한 논거를 이론적으로 제시한 인물은 안재홍이었다.[48] 안재홍, 문일평, 홍명희 등은 일부 사회주의 계열에 속하는 인사들과 연대하여 합법적인 문화운동으로 조선학운동을 전개하여 일제의 식민지지배에 대한 저항을 시도하였다.[49]

정인보로 시작된 조선학 연구 및 조선학운동은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간에 그 지적 배경에 따라 그 연구의 지향과 방법에서는 이견이 존재하였지만, 그 근거를 '실학'에서 찾았다는 점은 공통적이다.[50] 조선 후기 실학은 당시 일제의 조선인식에서 왜곡되고 가장 쟁점이 되었던 '봉건사회 결여론'과 관련해 조선역사가 주체적으로 근대 자본주의 국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사상이었기 때문이다. 『여유당전서』 간행을 계기로 시작된 다산기념사업은 조선학운동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학=실학의 신개념을 정립시켰다. 안재홍이 운동론적 관점에서 조선학운동을 제기했다고 한다면, 조선학운동의 학문적 내용성을 충족시킨

記者)]」; 鄭寅普, 「朝鮮古典解題(13) 李椒園 忠翊의 椒園遺藁」, 『東亞日報』 1931.3.30).

47) 樗山, 「朝鮮과 文化運動」, 『新朝鮮』, 1935. 1.

48) 이지원, 『한국 근대 문화사상사 연구』, 혜안, 2007, 328쪽.

49) 「개항기 및 식민지시대 실학연구의 특성」, 『韓國實學硏究』 7, 2004, 235쪽.

50) 임형택, 「국학의 성립과 실학에 대한 인식」, 『실사구시의 한국학』, 창작과비평사, 2000, 38쪽.

인물은 양명학자이며 당시 연희전문학교 교수인 정인보였다.[51]

정인보는 실학자들의 저작과 학문을 설명하면서 '조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조선 후기 실학에서 양명학에 이르는 여러 학문 경향을 '근세 조선학'의 계파로 설명하였다. 그는 근세 조선학의 계파는 대략 세 파가 있는데, 성호 이익을 시조로 보았으며,[52] 정약용을 조선 역사에서 '유일한 정법가(政法家)'로 규정하고, 1934년 9월 총 6회에 걸쳐서 정약용 연구의 서론(敍論)으로 작성하였다.[53] 실학의 계보를 반계-성호-다산으로 확정하여, 정약용을 근세 조선학을 학술적으로 집대성한 인물로 규정하였다.[54] 정인보의 이러한 자세는 정약용의 사상이 '신아구방(新我舊邦)'[55]을 내세운 주체적인 근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안재홍도 정약용을 '경세가'로 지칭하면서 그의 사상이 '변법자강으로 낡은 나라를 새롭게 하고(變法自疆 新我舊邦)'하며, '세상을 다스려 백성을 윤택하게 하여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구하며(經世澤民 護國救民)'하고, '백성과 나라의 일을 바로잡고 도와서 진작시키는 것(匡扶振作 民國之事)'에 목적이 있다고[56] 언급하였다. 그는 『원목』에 주목하여 정약용의 사상이 루소의 『사회계약론』이나 『인간불평등기원론』과 마찬가지로 강자의 권리와 예속된 노예를 탄핵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기독교의 박애사상을 기뻐하고, 평등사회를 지향한 인물로 평가함으로써 정약용을 근세 자유주의를 연 인물로, 자본주의적 근세 국민주의의 선구자로, 계급 타파와 만민평등의

51) 이지원, 『한국 근대 문화사상사 연구』, 혜안, 2007, 338쪽.
52) 鄭寅普, 「椒園遺藁」, 『薝園 鄭寅普全集』 2, 연세대학교출판부, 1983, 28쪽.
53) 鄭寅普, 「唯一한 政法家 丁茶山先生 敍論」, 『東亞日報』 1934년 9월 10일-15일.
54) 鄭寅普, 「茶山先生의 一生」, 『薝園 鄭寅普全集』 2, 연세대학교출판부, 1983, 62-68쪽.
55) 鄭寅普, 「唯一한 政法家 丁茶山先生 敍論」, 『東亞日報』 1934년 9월 10일-15일.
56) 안재홍, 「最近國際危局의 三中心」, 『신조선』 1934. 10.

주창자로 국가 사회민주주의의 사상체계를 선취한 인물로[57] 평가하였다.

사회주의자이자 국문학자였던 김태준은 조선 후기에 전 시대의 학풍과는 다른 새로운 개혁사상이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을 '실사구시 학파'라고 하면서 정약용을 중심인물로 꼽았다.[58] 김태준에 따르면, 정약용은 양반출신이지만 양반을 미워한 존재이며 구제도의 모든 잔재물을 증오한 '시대의 반항아'로, 민본주의적 견해를 바탕으로 모든 제도를 개혁하고 상공업을 발전시키며 시민 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대의 건설을 도모한 개혁가였다.[59]

백남운은 정약용이 봉건사상과 근세적 자유사상의 과도기적 존재라고 평가하면서도 정약용을 '조선의 근세적 자유주의의 선구자'로[60] 평가하고, 그의 사상이 "봉건적 쇄국주의의 계급적 차별에 대한 반항의식의 표현인 동시에 인류애와 자유주의 사상에 대한 동경에서 나온 것"[61]이라고 보았다.

사회주의 사상가 최익한은 정약용의 정치철학이 프랑스 계몽학자들의 사상과 유사하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정약용이 구상한 이상 국가가 루소의 사회계약설을 연상키며, 정약용의 이론이 원시공동체적 사회가 해체되고 민주주의적 합의가 붕괴된 뒤 지배 계급의 폭력적 독재 정치가 출현하게 된 배경을 다룬 『인간 불평등 기원론』과도 통한다고 보았다.[62] 더 나아가 최익한은 『원목』이 통치 계급의 발생과 성립과정을 인민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스스로 선택한 결과로 설명하고 있다고 보고, 정약용이 왕권신수설을 반대하고 민주제도를 원칙적으로 시인한 것[63]이라고 평가하였다.

---

57) 안재홍, 『民世安在鴻選集』 5, 1981, 142-152쪽.
58) 김태준, 『김태준문학사론선집』, 현대실학사, 1997, 319-349쪽.
59) 위의 책, 347-348쪽.
60) 「丁茶山의 思想」, 『東亞日報』 1935.7.16.
61) 백남운, 『백남운전집』 4권, 이론과 실천, 1993, 119쪽.
62) 최익한, 『실학파와 정다산』, 서해문집, 2011, 415쪽.
63) 崔益翰, 「與猶堂全書를 讀함(56)-社會政治哲學의 基調」, 『동아일보』 1939.5.4.

정약용의 사회개혁론 가운데 조선학운동 참여자들이 가장 주목한 것은 토지개혁론이었다. 정약용은 자신의 저서『전론(田論)』에서 토지의 편중과 농민에 대한 과도한 수탈을 극복하기 위한 토지개혁안으로 여전제(閭田制)를 제안하였다. 김태준은 여전제의 핵심 주장이 토지 공유였다고 언급하였고, 사회주의 경제학자 백남운도 공동경작, 공동장부, 공동저장, 배분장부 등 노동전수권 이론의 기초가 확립된 것은 조선근세경제사상사 상의 주요한 지위를 차지한다고 평가하였다.[64] 안재홍도 여전제가 공동경작법과 1/10의 국안징수(國案徵收) 등을 근세 토지국유론에서 출발한 일부 사상과 공통되면서도 "일종의 국가적인 사회민주주의의 명백한 사상체계를 방불케 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여 진보적인 정책사상이라고 보았다.[65]

그러나 정약용이 제안한 여전제는 30가구 정도를 단위로 하는 '여(閭)'라는 행정 조직을 만들고, 그 안에 있는 토지를 공동경작하는 방식으로 중국 고대의 정전제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봉건적 신분질서와 통치체제 속에서 시행되는 일종의 토지국유제 개혁안이었다. 따라서 여전제를 통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나 근대성을 찾는다는 것은 무리이다. 그럼에도 조선학운동 참여자들은 여전제를 근대적 토지개혁론으로 이해하려 하였고, 왕도정치의 이상을 담고 있는 정약용의 유학적 개혁론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근대적 사회개혁론의 관점에서 평가했던 것이다.

또한 정약용은『목민심서』에서 국가와 사족과의 관계를 의존적인 관계로 설정하고, 국가는 사족이 없으면 소민(小民)을 통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는 사족의 보호가 필요하고, 사족 보호를 위해서는 노비제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약용의 주장은 "계급 타파와 만

64) 「丁茶山의 思想」,『東亞日報』 1935.7.16.

65) 安在鴻,「現代思想의 先驅者로서 茶山先生 地位-國家的 社會民主主義者」,『신조선』, 1935. 8.

민평등의 주창자로 국가사회민주주의의 사상체계를 선취한 인물"로 파악할 수 없는 지점이 존재한다.[66]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식민사관의 극복은 절대적인 과제였기 때문에 조선 후기 개혁사상으로서 실학은 식민사관의 핵심 쟁점인 정체성론, 즉 '봉건사회 결여론'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민족주의이든 사회주의이든 노선과 관계없이 조선학운동 참여자들은 정약용을 조선 후기 실학의 집대성자로 평가하면서 그가 언급한 각종 개혁론들을 서양의 사상가들과 직접 대비시켜 설명하였다. 그 결과 실학은 '사회개혁 사상'이자 '근세 자본주의 국가 사상'으로 인식되었다.

그 결과 다산 정약용의 사상은 조선학운동 속에서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상황과 연동되어 소환되었고, '의도적 배제'와 '해석의 과잉'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민족의 전통과 역사 속에서 근대성을 확보하고자 했기에 정약용의 사상이 기초한 유학적 측면은 의도적으로 배제되었고, 그의 사회개혁론은 과잉적으로 해석되었다. 근대적인 요소만을 확대해석한 결과 다산 정약용이 조금도 구상하거나 의도하지 않았을 '근대성'이라는 표지가 그에게 붙었던 것이다.[67]

이러한 양상은 정약용 비롯하여 이익, 홍대용, 박지원 등 여타의 실학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이 지점에서 정약용을 비롯한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개혁사상은 자신이 성장했던 조선 후기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학술장으로 이식되어 그들이 본래 의도하지 않았던 근대성을 부여받게 되었던 것이다.

---

66) 정약용의 사족보호론에 대해서는 김현영, 「茶山 丁若鏞의 士族保護論」, 『空士論文集』, 17, 1983 참조.

67) 김선희, 「조선학에 비친 다산」, 『다산과 현대』, 2017, 119-120쪽.

맺음말

이상을 통해서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조선 후기 실학자의 저작 출간 실태를 살펴보고, 나아가 1930년대 조선학운동 전개 속에서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개혁사상이 어떻게 근대적으로 소환되어 해석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1910년 '국망' 이후 식민지 조선에서는 재조일본인 단체인 조선고서간행회와 조선연구회를 중심으로 한국 고문헌의 수집·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조선군서대계'와 '조선고서진서'라는 총서로 간행되었다. 총서 안에는 실학자의 저작이 다수 포함되었다. 조선고서간행회와 조선연구회의 한국 고문헌에 대한 조사·연구 및 간행은 일제의 조선통치를 원활히 하기 위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식민사학 형성의 기초자료가 되었다.

최남선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조선광문회에서의 고전발간은 일본인 학자들의 조선에 관한 조사·연구 및 고문헌 간행에 대한 '정신적 영역'에서의 대응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그리고 '국망'이라는 민족국가의 좌절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통과 '고유한 문화'를 발견하고 보존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1930년대에 들어가면서 1941년까지 총 7종의 실학자 저작이 출간되었는데, 대표적인 실학자의 저서는 신조선사에서 간행한 다산 정약용의『여유당전서』이다. 1930년대 실학자의 저작 간행에서 가장 주목되는 특징은 첫째, 전집 형태의 '거질'로 공간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1920년대 이후 더욱 심화되는 일제의 동화정책 내지 내선융화의 이데올로기 강화정책에 대항하는 정신적 대응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920년대 경성제국대학 설립 이

후 제국대학과 식민지 미디어 아카데미 사이의 복합적인 관련 속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던 '조선학'이라는 당대의 학술을 염두에 둔 간행이었다. 셋째, 1930년대 실학서의 간행은 조선 후기 개혁사상인 실학을 계보화하여 조선학의 범주에서 인식하게 되었으며, 민간차원에서의 조선문화 연구의 연장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실학자의 저작 출간은 조선학 연구 및 조선학운동의 전개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좌우합작을 통해 민족의 활로를 모색하려던 신간회운동이 실패로 돌아가고 식민지 조선에서 비타협적인 민족운동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자 신간회의 해체에 반대한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차선책으로서 문화운동'론이 모색되었다. 조선 후기 실학은 당시 일제의 조선인식에서 왜곡되고 가장 쟁점이 되었던 '봉건사회 결여론'과 관련해 조선역사가 주체적으로 근대 자본주의 국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사상이었기 때문이다. 『여유당전서』 간행을 계기로 시작된 다산기념사업은 조선학운동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학=실학의 신개념을 정립시켰다. 그 중심에는 정인보가 있었으며, 대표적인 실학자는 정약용이었다.

그러나 조선학운동 속에서 정약용의 사상은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상황과 연동되어 소환된 면이 존재한다. 그 결과 정약용의 사상이 기초한 유학적 측면은 의도적으로 배제되었고, 그의 사회개혁론은 과잉적으로 해석됨으로써 다산이 조금도 구상하거나 의도하지 않았던 '근대성'이라는 표지가 그에게 붙게 된다. 이러한 양상은 정약용 비롯하여 이익, 홍대용, 박지원 등 여타의 실학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이러한 지점에서 정약용을 비롯한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개혁사상은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학술장으로 이식되어 그들이 본래 의도하지 않았던 근대성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1940년대 식민지 조선의 지성계에서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실학자들의 전서를 편찬하려 했다. 해방 후 『대전회통』, 『만기요람』 등의 국역에 관여한 바 있던 김춘동이 1960년대 초반 식민지 출판문화에 관해 기억한 바에 따르면, 신조선사에서 『여암전서』의 편찬을 맡아 보고 있는 중이던 1940년 10월, 뜻을 같이하는 이들이 모여 오문출판사(梧文出版社)를 설립하여 조선 후기 실학자 이규경이 조선과 청나라 여러 책의 내용을 정리하여 편찬한 『오주연문장잔산고』를 간행하려고 시도했다고 한다.[68] 그러나 『오주연문장잔산고』는 이후 편찬되지 못한다. 이때는 1937년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켜서 식민지 조선은 이른바 전시체제기의 총동원체제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이다.

(논문투고일: 2021.12.12. 심사완료일: 2022.1.2. 게재확정일: 2022.1.12.)

68) 김춘동,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盞散稿)에 취하여-노두생애(老蠹生涯)」, 『민족문화연구』 1, 1964; 장문석, 「식민지 출판과 양반-1930년대 신조선사의 고문헌 출판 활동과 전통 지식의 식민지 공공성」, 『民族文化史研究』 55, 2014, 353쪽에서 재인용.

참고문헌

〈자료〉

『皇城新聞』, 『每日申報』, 『東亞日報』, 『朝鮮日報』

『朝鮮光文會告白』, 朝鮮光文會, 연도 미상

鄭寅普, 『澹園鄭寅普全集』, 연세대학교출판부, 1983

安在鴻, 『民世安在鴻選集』, 지식산업사, 1981

金台俊, 『金台 文學史論選集』, 현대실학사, 1997

백남운, 『백남운전집』 4권, 이론과 실천, 1991

『朝鮮人士興信錄』, 京城, 朝鮮新聞社, 1935

大村友之丞, 「序文」, 『角于先生實記』, 朝鮮研究會, 1911

靑柳南冥, 『總督政治史論』, 京城新聞社, 1928

최익한, 『실학파와 정다산』, 서해문집, 2011

〈연구서〉

이지원, 『한국 근대 문화사상사 연구』, 혜안, 2007

趙東杰, 『現代韓國史學史』, 나남출판, 1998

〈연구논문〉

강영주, 「碧初 洪命熹와 朝鮮學運動」, 『人文科學研究』 5, 1996

權泰檍, 「同化政策論」, 『歷史學報』 172, 2001

김상엽, 「『고박영철씨기증서화류전관목록』을 통해 본 多山 朴榮喆(1879-1939)의 수장 활동」, 『문화재』 44, 2011

김선희, 「조선학에 비친 다산」, 『다산과 현대』, 2017

김영호, 「茶山學研究史序說-茶山實學에 대한 研究成果와 그 問題點」, 『茶山學論叢』, 1987

金泰雄, 「1910년대 前半 朝鮮總督府의 取調局·參事官室과 '舊慣制度調査事業'」, 『奎章閣』 16, 1994

김현영, 「茶山 丁若鏞의 士族保護論」, 『空士論文集』, 17, 1983

류시현, 「崔南善의 '近代' 인식과 '朝鮮學'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박영미, 「일본의 조선고전총서 간행에 대한 시론」, 『漢文學論集』 37, 2013
서신혜, 「일제시대 일본인의 古書刊行과 호소이 하지메[細井肇]의 활동-고소설 분야를 중심으로-」, 『溫知論叢』 16, 2007
송수영, 「추사 김정희 연구자료의 고찰과 제언」, 『서예학연구』 19, 2011
오영섭, 「朝鮮光文會 硏究」, 『韓國史學史學報』 3, 2001
윤소영, 「호소이 하지메(細井肇)의 조선인식과 '제국의 꿈'」, 『한국근현대사연구』 45, 2008
임형택, 「국학의 성립과 실학에 대한 인식」, 『실사구시의 한국학』, 창작과비평사, 2000
장문석, 「식민지 출판과 양반-1930년대 신조선사의 고문헌 출판 활동과 전통 지식의 식민지 공공성」, 『民族文化史硏究』 55, 2014
정재철, 「김택영의 『연암집』 편찬과 그 의미」, 『韓國漢文學硏究』 63, 2016
정효훈, 『누판고(縷板考)의 지식 세계와 조선 학술」, 『한국문화』 89,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20
조 광, 「실학의 발전」, 『한국사』 35, 국사편찬위원회, 1998
_____, 「개항기 및 식민지시대 실학연구의 특성」, 『韓國實學硏究』 7, 2004
조범성, 「1930년대 靑丘學會의 설립과 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7, 2021
최혜주, 「아오야기(靑柳綱太郎)의 來韓활동과 植民統治論」, 『國史館論叢』 94, 국사편찬위원회, 2000
_____, 「일제강점기 조선연구회의 활동과 조선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2, 2005
_____, 「식민지 시기 재조일본인의 출판활동과 조선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5, 2018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조선학운동」(http://contents.history.go.kr, 2021년 6월 7일 접속)